

AUTHOR 신복윤 (Bock Eyun Shin)

TITLE 칼빈 신학에 있어서의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2) (The Knowledge of God the
Creator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2))

IN 신학정론(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8 no.2 (December, 1990):390-410

칼빈 神學에 있어서의 創造主 하나님에 관한 知識 (2)

신 복 윤
〈교수·조직신학〉

II. 罪의 知的 영향

칼빈은 하나님에 관한 自然的 知識의 과산을 대단히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은 그가 객관적으로 고려된 自然啓示를 부적당하다거나 무력하다고 생각한데서 온 것은 아니다. 사실 칼빈은 하나님의 一般啓示의 객관적 타당성을 아주 명백히 주장하였던 것이다.¹⁾

그러나 人間은 하나님을 알되 충분히 알지 못한다. 이것은 어떤 일부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罪로 말미암아 부패했다는 데서 그 설명을 찾는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事役(works)과 행위(deeds)에서 전지된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구조속에 깊이 간직된 직각적 神知識이 무디어지거나 거의 말살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지식과 관련하여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 속에 유발된 죄의 지적 영향에 관한 칼빈의 교리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의식(sensus divinitatis), 良

心, 그리고 현상계에서 보여주시는 계시와 관련하여 罪의 영향교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A. 神意識에 미친 罪의 영향

인간에게는 고유하고 보편적이며 지울 수 없는 하나님 의식(sensus divinitatis)이 있다. 이것은 기독교강요 제 1권 제 3장의 요지이다. 이 3장에서 칼빈은 인간의 현재의 타락한 모습을 말하고, 타락 이전의 인간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장인 제 4장에서 칼빈은 sensus divinitatis를 말하면서 그 4장의 제목을 “이 지식은 부분적으로는 無知, 부분적으로는 惡意로 말미암아 질식 혹은 부패되었다”라고 생생하게 불렀다. 칼빈은 다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는 사실은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이 씨앗을 마음에 소중히 키우고 있는 사람은 백 사람 가운데 겨우 한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더우기 그것을 무르익게 해서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시 1:3 참조). 게다가 어떤 사람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

인간의 타락의 형태는 심각하고 다양하다. 즉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서 만들어낸 허구와 망상에 드리는 것이다.”²⁾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2) *Inst.*, I. 4. 1. OS III. 40. 31. 32-41.

3) *Ibid.*, OS III. 41. 19.

1) Warfield, B.B., *Calvin and Augustine*, p.43.

미친듯이 쫓아내고 있다.”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박탈하여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계으름 뱀이로 가두어 버리고 있다.”⁵⁾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하여 그의 권능을 제거하고 있다.”⁶⁾

마침내 그들은 그러한 거대한 오류에 그들 자신을 얽어 뱀으로써 할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 번쩍이던 그閃光을 우매한 죄악으로 질식시켜 마침내는 꺼지게 한다. 그러나 그 씨앗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결코 근절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神性에 대한 어떤 관념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씨앗은 매우 부패하였기 때문에 가장 나쁜 열매를 맺을 뿐이다.⁷⁾

그러므로 *sensus divinitatis*를 남용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意志를 따르고자 할 때 그들 자신의 본래의 本性과는 역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本有的 神知識에 의해서 갖게되는 회의, 혹은 수치를 질식시키고, 그것을 흉악한 죄악으로 억눌러 쉽게 없애 버린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전적으로 근절하지 못한다. 그들은 예기치 않게 달려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전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sensus divinitatis*를 억제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애쓴다. 그들의 생활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생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치 그들의 행동을 보지 못하며 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⁸⁾ 그러므로 종교의 씨앗(*semen religionis*)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그것은 칼빈이

4) *Inst.*, I. 4. 2, OS III. 41, 34.

5) *Ibid.*, OS III. 42. 2. 3.

6) *Ibid.*, OS III. 42. 13-14.

7) *Inst.*, I. 4. 4, OS III. 44, 14-19.

8) *Inst.*, I. 4. 2, OS III. 42. 11-12.

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 즉 믿음, 두려움, 경외,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예배로 구성되는 그런 종교와는 전적으로 다른 종교를 가져왔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의 공허하며 거짓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 종교의 그림자라고 부를 가치조차도 없는 것이다.”⁹⁾

칼빈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無知, 혹은 盲目으로 말미암아 말살되거나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시종일관하게 무지야말로 죄의 결과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그들의 무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盲目은 항상 교만, 허영, 그리고 완고함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萬物의 멧세지를 부패케 했기 때문에, 만사가 우리를 도와 지식을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물의 不充足性의 원인은 그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게 있다. 따라서 인간은 핑계할 수 없는 것이다.¹¹⁾ “그들의 어리석음은 이와같이 허망한 호기심에서 뿐만 아니라, 거짓된 신뢰에 따라 제한된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 보려는 지나친 욕망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조금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¹²⁾ 이와같이 타락한 인간은 無知, 혹은 盲目으로 특징 지어질뿐만 아니라, 부패, 왜곡, 혹은 그가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식의 오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없다. 自然啓示를 논할때 이러한 표현은 칼빈이 범죄한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적인

9) *Inst.*, I. 4. 4, OS III. 43. 33.

10) *Inst.*, I. 4. 1, OS III. 41. 6-9.

11) *Ibid.*, 5. 14-15 참조.

12) *Ibid.*, OS III. 41. 26-28.

방법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인간은 고의적으로 빛을 대항하는 죄인이다.

위에서 인용한 여러 인용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知識이 멸절되거나 부패하였다는 것, 인간은 자신이 받은 것을 소중히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 인간은 고의적으로 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쫓아버리고, 공의와 섭리와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박탈하였다는 것,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 등이다. *sensus divinitatis*에 미친 죄의 영향과 관련하여 말하는 기독교 강요의 여러 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은 眞理를 몰랐다가 보다는 고의적으로 반역한 존재라는 점이다. 인간은 “자신의 육적인 어리석음을 표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판단, 건전한 탐구를 게을리 하고,”¹³⁾ “교만으로 어두어 지고,”¹⁴⁾ “제한된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 보려는 지나친 욕망을 보이고,”¹⁵⁾ “고의적으로 자신을 어리석게 하고,”¹⁶⁾ “하나님의 존재를 공공연히 부정하고,”¹⁷⁾ “고의적으로 그들의 눈을 닫아버리고,”¹⁸⁾ “그리하여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개으름뱅이로 가두어 버림으로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를 단호하게 부정한다.”¹⁹⁾ 그리고 “그들은 무감각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이 망각에 지배되고 있으며,”²⁰⁾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며,”²¹⁾ “마땅히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

13) *Ibid.*, OS III. 41. 12. “neglecta solida investigatione.”
 14) *Ibid.*, OS III. 41. 24-25.
 15) *Ibid.*, OS III. 41. 26-27.
 16) *Inst.*, I. 4. 2, OS III. 41. 31. “consulto seipsos obstupefaciunt.”
 17) *Ibid.*, OS III. 42. 1.
 18) *Ibid.*, OS III. 42. 8.
 19) *Ibid.*, OS III. 42. 18-21.
 20) *Ibid.*, OS III. 42. 23.
 21) *Inst.*, I. 4. 4, OS III. 43. 21. “adversus Dominum belligerantur.”

히려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들 자신을 신뢰한다.”²²⁾

칼빈은 이렇게 罪의 지적 영향을 최악의 경우로 말할때에도 인간의 無知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오히려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악용하고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부패하게 태어나서 스스로 범죄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이 生來의인 부패가 자주 생래적인 盲目을 동반한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다.

B. 良心에 미친 罪의 영향

良心에서 주어진 하나님 知識도 다른 모든 형태의 自然啓示와 마찬가지로 죄의 해로운 영향을 전적으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양심에서 주어진 하나님 지식에 미친 죄의 영향은 다른 두 형태의 자연 계시에 미친 영향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다. 이 사실을 칼빈은 타락의 일반적 결과를 논하는 기독교강요 제2권 제2장에서 강조한다. 칼빈이 주로 여기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타락한 인간은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罪에 대한 구실을 無知로 내세울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려는데 있다.

만일 이방인이 그 본성에 따라 그 마음에 율법의 의가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고 말할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말하는 自然法에 따라 인간이 충분히 생활의 바른 법칙을 배운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사실이다(롬 2:14, 15).²³⁾

이것은 무지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인간에게 주지 않고도 남음이 있다.²⁴⁾ 따라서 죄인이 “자기 마음에 심어진 善惡에 관한 지식을 피하려고 아무리 애써도…다만 무지때문에 범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²⁵⁾ 율법에 관한 지식은 그리스

22) *Ibid.*, OS III. 44. 13.
 23) *Inst.*, II. 2. 23, OS III. 264. 29-31.
 24) *Ibid.*, OS III. 256. 9-10.
 25) *Ibid.*, OS III. 256. 17-20.

도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유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단체생활은 모두 법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법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²⁶⁾ 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공정한 定罪을 받게 된다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²⁷⁾ 자연법이 양심의 명령에서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양심은 사람이 무지를 구실로 삼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저야할 책임을 명백하게 한다.²⁸⁾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意志에 관한 진정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은 오류의 암흑에 덮여 있기 때문에, 자연법에 의해서는 어떤 경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²⁹⁾

한편 우리는 위의 여러 인용문에서, 율법의 義와 양심사이, 하나님의 율법이행에 대한 인간의 무능력과 그 불이행에 대한 양심의 심판 사이에, 칼빈이 어떻게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였는지를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셔서 자신을 경외하게 하시며, 한편 인간의 不義에 대하여는 책망하시는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義를 연결한 것은 칼빈의 神學 사상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³⁰⁾ 본질적으로 罪가 인간을 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더이상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인식하는 靈的恩賜를 소유할 수 없게 되었으며, 더우기 인간이 계속해서 善惡을 구별할 수 있는 자연법의 통찰력을 다소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연법은 인간이 자신의 無知를 구실로 삼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증거에 의하여 有罪를 증명한다.³¹⁾

26) *Inst.*, II. 2. 13, OS III. 256. 36-38.

27) *Inst.*, II. 2. 22, OS III. 265. 6-7.

28) *Inst.*, II. 2. 22; 8. 11; III. 19. 15.

29) *Inst.*, II. 8. 1, OS III. 344. 17-19.

30) Cf. II. 8. 1.

31) *Inst.*, II. 2. 22, OS III. 264. 265.

良心에서 주어진 하나님 지식이 타락의 결과로서의 죄의 영향에서 전적으로 피할 수 없다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선악을 구별하는 일반적인 판단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모든 점에서 건전하며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에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주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지를 핑계로 삼지 못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반드시 개개의 경우에 진리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³²⁾

이처럼 善惡에 대한 구별능력은 인간정신에서 병들고 손상되었다.³³⁾ 그것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은, 마비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처참하게 부서진 파편들만이 남아있을 뿐이다.”³⁴⁾ 이러한 이유때문에 우리에게서 律法의 첫째 돌판을 알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다. 율법의 둘째 돌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진리를 바로 접근할 능력을 갖지 못한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완전한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의 理性을 측정하려고 하면, 여러 점에서 우리는 이성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첫째 돌판보다는 둘째 돌판에 대하여 다소 명백한 이해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³⁵⁾ 특별히 自然人은 거만이나 정욕과 같은 내적 질병의 혼란을 정죄하지 않는다.³⁶⁾ 그러므로 모든 죄를 무지에 돌린데 대해서 플라톤은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칼빈은 “선한 의도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자주 잘못에 빠질 만큼... 우리의 理性은 무수한 형태의 속임수에 압도되어 있는 것이다.”³⁷⁾라고

32) *Inst.*, II. 2. 24, OS III. 266. 10-16.

33) *Ibid.*, OS III. 266. 267.

34) *Inst.*, II. 2. 12, OS III. 255. 14.

35) *Inst.*, II. 2. 24, OS III. 266. 17-20.

36) *Ibid.*, OS III. 267. 10-11.

37) *Inst.*, II. 2. 25, OS III. 267. 20-27.

하였다. 자연인은 모든 일에서 자신의 탐욕이 자신의 부패한 상태를 겨누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자연의 빛은 사람이 이 深淵에 들어서기도 전에 꺼져 버린다.”³⁸⁾

神意識이나 창조에서 얻을수 있는 하나님 知識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무지와 율법의 왜곡에 대한 원인은 바로 罪이다. 칼빈은 “사람의 자연적인 재능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였다”³⁹⁾라고 한 어거스틴의 주장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추가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악을 구별하여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이성은 자연적인 재능으로, 이것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일부분은 약화되고, 일부분은 부패하여 기형적인 잔해가 남아있을 뿐이다.”⁴⁰⁾ 이 無知는 원죄의 결과로써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다. 더우기 무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本罪의 결과로 일어난다. 그러나 죄는 양심에서 주어진 하나님 지식에는 적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아직도 어느 정도 남아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효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⁴¹⁾

이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칼빈은 양심에서 주어진 自然法을 자신이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칼빈은 십계명의 둘째 돌판을 해석하면서 자연법의 내용의 많은 부분을 그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의 방법은, 각 계명을 提喻法(synecdoche)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명령하신다는 원리에 따라 否定을 肯定으로 돌리는 방법이다. 예를들면, “도적질 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당한 소유를

38) *Inst.*, II. 2. 24, OS III. 267. 15-16.

39) *Inst.*, II. 2. 12, OS III. 254. 30-31.

40) *Ibid.*, OS III. 255. 11-14.

41) *Inst.*, II. 2. 22, OS III. 264. 265.

보존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도록 명령을 받았다”⁴²⁾는 뜻이다. 그와같은 방법은 자연법을 사용하는 데 분명히 그 범위를 크게 넓혀준다. 모세 5경의 마지막 네권의 대조 주석에서도 칼빈은 그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그는 고대 이스라엘의 법률제도 전체를 하나님의 意志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동시에, 각 계명에 儀式的, 政治的, 司法的인 보충설명을 가하였다. 이와같이 神的 意志에 관한 지식이 양심을 통해서 얻어질수 있다고 강조하는 칼빈 신학의 중요한 역할은, 말하자면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그 지식의 범위와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이처럼 良心에서 우리는 *sensus divinitatis*나 현상계의 계시를 부정할 정도의 심각한 반대교리없이 自然神學의 중요한 출처를 발견하게 된다. 칼빈이 이렇게 양심을 적극적으로 다룬데 대하여는 그 이유를 찾는 데 어렵지 않다. 그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것은 이교도의 법률에 대한 연구였다. 더우기 그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계시의 다른 형태들과 충돌하는 부정적 교훈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동시에 그는 로마서 2:14-16에서 명백하고도 비증있는 지원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2:14-16과 1:21 등 두 구절이 그의 마음을 묶어, 인간이 책임을 지는 존재라면 마땅히 율법을 알아야 한다는 확신을 그로 하여금 갖게 하였다.

칼빈은 *sensus divinitatis*나 창조에서 주어진 하나님 지식의 문제에서 성경에 호소했던 것처럼, 良心에 미친 죄의 영향에 관한 자신의 견해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았다. 그러나 그는 역시 경험에 상당한 비중을 두기도 하였다.⁴³⁾

C. 現像界에 미친 罪의 영향

기독교장요 제 1 권 제 5 장에서 칼빈은 현상계에서 얻을수 있는

42) *Inst.*, II. 8. 45, OS III. 384. 10-11.

43) *Inst.*, II. 2. 22-25.

하나님 知識을 다룬다. 그리고 이 5장 첫부분에서 그는 하나님의 事役에서 볼수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논한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나서 啓示를 설명한 다음 즉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역이라는 거울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그 뚜렷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점점 더 우둔하여져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⁴⁴⁾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사실 자연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로 지배를 받는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운명에 의하여 회전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우리중에 얼마나 되겠는가?⁴⁵⁾

대부분의 사람들은 創造를 생각할 때 이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사역 그 자체만으로 만족한다. 비록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생각을 끌어서 창조세계를 뛰어넘게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생각할 뿐이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특수한 오류를 만들어낸다고 말하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기괴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위해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데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동일하다. 凡人이나 둔한 자만이 아니라 가장 탁월하고 다른 일에 있어서는 예리한 식별력을 가진 자라도 다같이 이와같은 질병에 걸려 있다.”⁴⁶⁾ 가장 미련한 사람들처럼 행한 철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44) *Inst.*, I. 5. 11, *OS* III. 55. 3-6.

45) *Ibid.*, *OS* III. 55. 11-15.

46) *Ibid.*, *OS* III. 55. 21-23.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종교적이며, 가장 신증했던 플라톤 역시 자신이 생각해 낸 球體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⁴⁷⁾ 여기서 全세계는 “오류의 진창”으로 범람하고, “각자의 마음은 迷宮과 같아서” “하나님 대신 자신을 위해서 우상과 환상을 날조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하나도 찾아볼수 없게 되었다.”⁴⁸⁾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만, 인간은 너무도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 칼빈은 이 사실을 시편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늘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지만, 그 증거는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배우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얻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다만 인간으로 하여금 변명할수 없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뿐이다. 물론 우리가 아주 둔하고 어리석지만 않다면, 세계라는 廣場에서 볼수 있는 神格의 서명과 증거가 너무도 풍부해서, 그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며 경외토록 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에 것처럼 밝은 빛이 에워싸고 있지만, 눈이 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찬란한 표현도, 우리의 귀를 쟁쟁하게 울려주는 크고 분명한 宣布구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⁴⁹⁾

칼빈은 다음과 같이 우울한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우주의 구조에서 조물주의 영광을 들어내기 위해 그렇게 많은 등불이 우리를 비추주고 있지만 그것은 헛될 뿐이다. 비록 그 광선이 우리의 본 들레를 비춰준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분명히 다소의 섬광을 발하기는 하나, 그것은 충

47) *Ibid.*, *OS* III. 55. 27-29.

48) *Inst.*, I. 5. 12. *OS* III. 56. 7-12.

49) *Com. Psalm* 19 : 7.

분한 빛을 비추기도 전에 질식하여 버리는 것이다.⁵⁰⁾

칼빈의 自然啓示에 대한 판단은 성경의 특별계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현상계는 하나님의 선함과 자비를 포함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공급해 주기에 충분하나—원리에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한편 그 자체의 제한성과 불완전성을 드러내 주기도 한다. 칼빈의 이와같은 부정적 판단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나, 인간의 타락과 원죄에 대한 어거스틴의 해석에 더욱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결과 칼빈은 그의 부정적 판단에서, 단편적이며 혼란한 지식이긴 하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기에 충분한 “본래적 지식”의 殘存物인 역사적 인간의 실제적 지식을 보게 된다. 그는 인간의 공통적인 경험과 관찰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키케로(Cicero)를 인용하였으나, 한편 그 지식은 보다 큰 지식으로 향하는 단계이며 단순히 “파괴된 것”이라고 해석한데 대하여 타락과 원죄의 관점에서 키케로를 비판하였다.

인간이 현상계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대하여 그것은 그들 자신의 자업자득이라고 칼빈은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순수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둔감의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⁵¹⁾ “참으로 우리의良心이 태어와 배은망덕을 깨우쳐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無知를 구실로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줄지라도 우리가 방황자요 방랑자로서 길을 잃고 헤맨다면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⁵²⁾ 여기서 명백해 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을 면할 아무 구실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창조세계에서 나타내 보이신 그 顯現은 그 빛 자체로 볼때 너무나 분명하다. 하지만 그 현현은 우리의

50) *Inst.*, I. 5. 14. OS III. 58. 35-59.

51) *Inst.*, I. 5. 15.

52) *Ibid.*

눈이 어두운 까닭에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를 邪惡의 구실로 내세울만큼 우리의 눈이 어두운 것은 아니다.”⁵³⁾

우리는 위에서 현상계에 미친 罪의 영향을 다루는 기독교강요의 여러 章들을 찾아보았지만, 여기서 알게 된 것은, 인간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흑암보다는 不順從의 상태라는 점이다. 그들은 “항상 그 뚜렷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며,”⁵⁴⁾ “마음을 기울여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가 극히 적으며,”⁵⁵⁾ “공허한 것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부패하게 만들고,”⁵⁶⁾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떠나다니 모두가 동의하고,”⁵⁷⁾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는데 狂氣를 보이며,”⁵⁸⁾ 어떤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념을 버리고”⁵⁹⁾ 그 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것을 무시하고,”⁶⁰⁾ “그들의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대항하며,”⁶¹⁾ 그리고 “마땅히 쏘아야 할 연구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⁶²⁾

몇몇 칼빈 해석가들은, 기독교강요, 신학논문들, 성경주석과 설교에서 하나님 知識에 미친 罪의 파괴적 영향에 대하여 칼빈이 말한 것들은 모두가 다 자연신학에 대한 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를 확신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변증법적 신학을 대표하는 K. 바르트(Karl Barth), P. 바르트(Peter Barth), 브룬너(Peter Brunner), 니젤(Wilhelm Niesel), 토란스(T. F. Torrance) 그리고 파커(T. H. L. Parker)와 같은 급진적인 칼빈 해석자들은

53) *Com. Romans* 1: 20.

54) *Inst.*, I. 5. 11.

55) *Ibid.*

56) *Ibid.*

57) *Ibid.*

58) *Ibid.*

59) *Inst.*, I. 5. 12.

60) *Com. Jer.* 20: 7.

61) *Com. Romans* 1: 27.

62) *Com. Romans* 1: 28.

자연신학에 대한 칼빈의 兩面的인 태도에서 변증적인 면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칼 바르트는 칼빈이 “원리에서만” 자연신학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니젤은 자연계시는 객관적으로는 實在하나 주관적으로는 실재하지 않다고 칼빈이 주장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토란스는 칼빈이 자연신학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워필드(B. B. Warfield)가 지적한 대로, 자연신학을 다루는 장들이 1539년판 기독교강요에 첨부된 이래 1559년 결정판에 이르기까지 보충설명 외에는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남아있다.⁶³⁾ 칼빈은 기독교강요 뿐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두드러지게 시편주석과 사도행전의 선교강화, 그리고 로마서 첫 두장의 주석에서 자연신학을 적극적으로 다루었던 것이다.

D. 自然啓示와 特別啓示와의 관계

자연신학에 대한 칼빈의 모순되는 듯한 태도는 그의 사상에 어떤 상충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창조의 계시에 대하여 그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계시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율법이 교사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사도행전 14장과 17장의 선교강화에서 이것을 명백하게 말한다. 바울은 여기서 합리적 논증을 통하여 유신론적 입장으로 인도하였다고 칼빈은 해석한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논증할 때 반대명제를 끌어들이었다. 잘못된 관념은 반드시 밝히 드러나서 진리에 자리를 내주는 법이다.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은 많은 神이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세상을 만드신

63) *Calvin and Augustine*. p.29.

한 분의 창조주를 전파하고 있다. 그 허위적인 많은 신들을 몰아냄으로써 두번째 단계의 길이 열려졌는데, 그것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길이였다.⁶⁴⁾

그들의 절차는 건전한 교육적 원리에 따라 진행되었다.

우리는 옳은 것을 가르칠 때 보다 잘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교도들에게 설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도 인도하려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실부터 말해야 했다. 그리하여 그 사실이 옳다는 인정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수가 있었다.⁶⁵⁾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은 자연의 증거들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에는 하나님의 명백한 나타나심이 있다. 땅이 비를 받아 축축해지고, 태양의 열이 생물을 자라게 하고, 풍성한 열매들이 해마다 맺게 되므로,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다”⁶⁶⁾는 원리에 따라 그들은 논증하고 있다.

자연신학의 논증을 통하여 창조주이신 한분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福音提示의 방법은 명백해 진다. 칼빈은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한 분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믿고 있다면, 자연신학의 변증적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우리가 벌이고 있는 교황주의자들과의 논쟁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고백하고 성경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

64) *Com. Acts* 14 : 15.

65) *Ibid.*

66) *Com. Acts* 14 : 17.

나눔은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⁶⁷⁾

바울은 아덴에서도 설교했다. 칼빈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자연신학을 사용했다고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설명한다.

첫째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迷信을 섬기고 있다고 책망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미신숭배는 우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리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自然을 근거로 한 논증을 설명한다. 셋째로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성자요 창조주를 알기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경처럼 어둠속에서 방황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통렬히 비난한다. 넷째로 바울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므로, 하나님을 像으로 만들거나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다고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죽은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한다. 그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말하기 전에 처음 네가지 요점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논하였는데, 그것은 가치있는 방법이었던 때문이다.⁶⁸⁾

그는 다시 계속한다.

바울의 의도는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는데 있다. 그는 불신자들을 상대로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自然으로 증거를 취하고 있다. 만일 바울이 그들과 논쟁하면서 성경본문을 인용하였더라면 아마 시간만 낭비했을 것이다. 나는 이 거룩한 사도의 의도가 아덴 사람들을 참되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라고 위에서 말한바 있다. 그들은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자기들의 그릇된 신앙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⁶⁹⁾

67) *Com. Acts* 14 : 15.

68) *Com. Acts* 17 : 22.

69) *Com. Acts* 17 : 24.

칼빈은 自然的 論證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은 마치 극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구경꾼들이라는 점을 말하고, 다음에 전 우주의 통치에서 그 자체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였다.”⁷⁰⁾

칼 바르트는 바울이 아덴과 루스드라에서 자연신학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는데,⁷¹⁾ 이와같은 입장은 칼빈의 해석과는 대조적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sensus divinitatis*와 양심과 현상계를 통하여 자신을 실제적으로 알리셨다고 주장하면서 자연신학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매우 자연스럽게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곳에서 말한대로, 어디를 보나 눈에 띄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역임을 기억하는 일,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가를 경건히 명상하며 생각하는 일, 이러한 것들은 신앙을 위한 으뜸되는 증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의 질서에 있어서 첫째가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⁷²⁾

이렇게 자연신학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과는 반대로, 우리는 칼빈의 사상에서 知的으로 미친 죄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개념을 보게 된다. 기독교강요와 성경주석과 설교에서 칼빈은 인간의盲目과 우둔함, 그리고 어두움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자연신학에서 얻은 지식을 특별게시의 준비단계로 사용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 같다. 따라서 그의 종교적 인식론에 있어서 중심적인 것은, 인간이 자연신학을 통해 알게되는 하나님은, 자연신학이 聖經에 의해서 조명되고, 聖靈에 의하여 증거되기 전에는, 결코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관념이다. 그래서 칼빈은 자연신학을 다루기 위하여 기독교강요 제 1권의 첫 서론적인 5개장을 할애하고 나서 즉시 6장과 7장에서 성경의 필요성과 성령의 내적증거를 설명한다.

70) *Com. Acts* 17 : 26.

71) *Dogmatik* : II. 1. pp.134ff.

72) *Inst.*, I. 14. 20. OS III. 170. 25-28.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사람의 눈에 명백하게 비치는 광채는, 인간들로 하여금 배은망덕에 대한 일체의 변명을 못하게 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정확히 우리를 우주의 창조주 앞으로 인도할 다른 훌륭한 조력자가 더 첨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⁷³⁾

그것은 마치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또는 시력이 약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책 한권을 내 보이면 어떤 종류의 책임지는 겨우 알 수 있겠지만, 거의 두 날말도 해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안경을 쓰면 똑똑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 버리며,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⁷⁴⁾

이와같은 성경의 공로는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본질적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아무도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극히 일부분이라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⁷⁵⁾ 그러나 성경이 본질적인 것처럼 성경의 권위에 대한 성령의 증거도 본질적이다.⁷⁶⁾

칼빈은 성경의 필요성과 聖靈의 증거에 추가하여, 하나님에 관한 二重知識 교리에서,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지식은 救贖主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 것 같다. 만일 그렇다면 자연에 있어서의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위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성경의 필요성 주장은 아무도 信仰知識과 관계없이 하나님에 관한 참된 신앙지식을 갖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이라는 眼鏡을 통하지 않고는 자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면, 자연신학은 성경계시의 준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선교강화에서 말하는 것

73) *Inst.*, I. 6. 1. OS III. 60. 11-17.

74) *Ibid.*, OS III. 60. 24-30.

75) *Inst.*, I. 6. 2. OS III. 63. 7-8.

76) *Inst.*, I. 7. 4. OS III. 70. 2-5.

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보게 된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자연신학은 복음의 기초가 되는 有信論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의 우위성과 성령의 내적증거에 관한 교리에서도 칼빈은 자연신학을 거부하지 않는다. 물론 자연신학은 특별계시에 대하여 예비적인 것으로써 뚜렷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그것이 성경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면 신자는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 지식의 제2의 근거를 찾게 된다. 출애굽기 34:6에서 “우리는 이미 본대로 하늘과 땅에서 빛나고 있는 것과 똑같은 完全성이 열거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곧 그것은 인자하심, 선하심, 자비로우심, 공의, 심판 그리고 진리와 같은 것들이다.”⁷⁷⁾ 그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충분히 나타내하고자 할 때에는 성경의 여러 실례들을 찾지 않고도 詩篇 한편만(시 145편)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완전성의 총체가 정확하게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생략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특히 145:5). 더우기 피조물에게서 볼 수 없는 것들은 여기에 전혀 묘사되지 않았다. 이와같이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는 敎理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⁷⁸⁾ 우리가 이미 본대로, 칼빈 사상에 있어서 良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意志에 관한 지식은 성경에서도 묘사된다. 그리하여 성경에 나타난 창조의 계시는 여분의 성경지식의 본래적 목적에 이바지하게 한다.

우리는 지금 칼빈이 자연신학을 어떤 준비적인 것으로 보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타락한 인간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 지식의 혼란한 부분들이 성경과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특별계시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된다는 것을

77) *Inst.*, I. 10. 2. OS III. 86. 19-22.

78) *Ibid.*, OS III. 86. 25-30.

칼빈이 믿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⁷⁹⁾ 그러므로 계시로서의 하나님 事役의 기능은 소극적인 면에서 복음의 준비로 이바지한다. 그 자체에 있어서 그것은 이 소극적인 기능만을 가질 뿐이지만, 성경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기능을 갖게 된다.⁸⁰⁾

79) Emil Brunner insists that the Word of God could not reach a man who had nothing of his consciousness of God left. *Natur und Gnade*, p.19. Reinhold Niebuhr emphasizes that without the private revelation of God, the public and historical revelation would not gain credence. *Nature and Outing of Man*, Vol. I, p.127.

80) T.H.L. Parker, *The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p. 39; cf. Francois Wendel, *Calvin :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p.102.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영적 각성운동*)

김 명 혁
〈교수·역사신학〉

머 리 말

범죄한 인류의 인간 역사 가운데 영적 각성운동이 시대마다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한다. 기독교적 영적 각성운동이란 본래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 타락하여 “육체”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성이 소생,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및 인간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본래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시대마다 일어났던 영적 각성운동들은 개인 개인의 삶의 영역 뿐 아니라 사회 및 문화 일반의 광범한 삶의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을 발견한다. 대화와 사회 정의 구현에 주관심을 가지고 한국 교회와 사회에 큰 공헌을 끼쳐온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뒤늦게나마 영적 각성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25주년 기념강좌에서 영적 각성운동을 하나의 발제 주제로 선정하게 된 것은 소망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영적 각성이냐?” “사회정의 실현이냐?”의

* 크리스찬 아카데미 25주년 기념강좌